

제 49 차 총회에 대한 서기 요약 및 속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 49 차 총회가 끝남에 따라 총회의 주요 결의안들의 요약이 우리 교단의 간행물 By Faith Online 을 통해 공지되었습니다 (<https://byfaithonline.com/byfaith-report-actions-of-the-49th-pca-general-assembly/>). 그 보고서에 이어서 미국 장로교의 총회 서기로서 제 49 차 총회에 대한 좀 더 속고적인 요약을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요약을 브라질 장로교 총회에 우리 교단 대표로 참석하며 쓰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아이티 장로교인들이 예배를 인도한 저녁에 있었습니다. 아이티 교회들은 브라질 장로교의 선교의 열매이며, 그날 저녁 그들의 섬김은 브라질 모 교회의 박수와 인정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제가 이 선교 증가의 그림이 여러분을 감동시키기를 원하는 이유는 브라질 장로교의 뿌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며, 현재의 리더들이 우리 선교사들과 학교들을 통하여 훈련을 받은 분들입니다. 브라질 장로교의 수천의 리더들이 아이티, 인도, 네팔, 앙골라, 뉴질랜드, 포르투갈, 한국, 파라과이, 남 아프리카와 이라크의 장로교 대표들을 환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증가하게 하는 영향력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세속화, 박해, 가난, 세계적 전염병, 그리고 우리 안의 논쟁과 방해 요소들이 결코 우리의 주재이신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장로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저로 하여금 제 눈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염려와 논쟁거리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사명에 신실한 교회를 통해 하실 수 있고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영원한 일들을 바라보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총회의 의논을 주도하는 현재의 문제들이나 주장들에 몰두하려 하거나, 교회가 할 기본 사역이 절차에 대한 투표에 이기거나, 또는 5년 전만해도 생각지 못했던 특별한 안전을 주장하는 형제들을 물리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어느 집단이나 부분이 모든 안전을 독점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도 승리를 축하하거나 이겼다고 자랑할 수 없이 각 집단이 기쁨과 실망을 조금씩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왕이심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총회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번 총회의 주요 논점은 우리가 성에 대한 성경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적 추세에 굴복한 많은 교단들과는 달리 우리 미국 장로교의 리더들은 성경적 도덕률을 버리거나 동성애의 실천이나 욕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총회 때 인간의 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승인했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헌신을 입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결혼과 성적 표현에 대한 성경의 기준들을 충실하게 따를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이 성적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하더라도 그가 어느 정도의 동성애적 유혹을 받는다고 솔직하게 시인할 때에 우리 기준들을 안수 요건에 적용하는

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에는 의견을 서로 달리한 것입니다.

지난 해에 이 문제들에 대한 헌법 수정 시도는 노회의 인준을 받지 못했는데, 여러 노회들이 제시된 표현들이나 절차들이 우리의 헌법을 구성하는 교회 규범(BCO)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 소요리 문답에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시도하려 합니다. 우리는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한 성경적 연합과 충실함이 이번 총회의 결정에서 분명히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목사들과 장로들이 총회 전에 연합을 위한 기도와 서로 고백함과, 그리고 솔직한 대화를 하기 위해 모여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총회 때 함께 일하여 헌의안 29 를 통과시킴으로써 응답되었습니다. 헌의안 29 는 성경적 순결과 점진적 성화에 대한 개인의 서약을 요구하는 명확한 안수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헌의안 29 는 헌법 16 장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었고, 이제 이 수정안은 헌법의 승인을 위한 다음 단계로서 각 노회에 보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헌의안 29 가 이미 안수받은 리더들에 대한 것이므로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의안 15 가 제안된 것인데, 이는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묘사하면서 동성애 행위를 피하며 독신을 실천하는 자들은 직분을 가질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 헌의안은 (총회에 헌법 수정을 추천하는) 헌의 위원회에서 아슬아슬하게 부결되었지만, 총회장에서 소수 보고서를 통해 가까스로 통과되었습니다. 헌법 7 장을 수정하는 이 제안 역시 노회들로 보내져서 헌법에 적절한지 여부를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총회 전에 교회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논쟁이 없기를 선호하지만 또한 우리는 성경의 요구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이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로 남는 교단에 속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금년에 받은 가정 학대와 성적 폭력에 관한 연구 위원회 보고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링크 [here](#)). 이 년에 걸쳐 마련된 이 보고서는 총회가 큰 감사로 받았습니다. 학대의 문제가 로마 카톨릭이나 남 침례교회만의 문제이기를 바라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일 것입니다. 타락의 영향은 우리 모두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예방 조치 징계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에 필요한 정보를 갖추고 준비해야 합니다. 연구 위원회는 지혜롭고 배려와 존중이 담긴 조언을 교회들에게 주었으며, 총회는 힘든 시기에 대비하여 징계 절차 착수를 위한 중요한 단계를 이미 밟았습니다 (헌의안 2021-40, 2021-41).

이번 총회에서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안건은 성경의 진리에 동의하는 교회들과 단체들로 광범위하게 구성된 단체인 복음주의연합(NAE)에 우리 교단이 남아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장로교가 출범한 이래로 우리는 우리와 다른 교회들이나 단체들과 어떤 수준의 제휴를 맺어야 하는가 고민해 왔습니다. 제휴가 사명의 협력에서 사명의 타협으로 변질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교단을 창립자들은

대외 교단 관계 위원회(IRC)를 세워 지금같이 문화적 도전과 교회의 분열이 증가하는 때에 어떤 제휴를 해야할 지를 숙고하여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대외 교단 관계 위원회는 증거와 영향력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주의연합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을 건의하였으나, 총회는 오히려 증거와 순결의 목적을 위해 탈퇴할 것을 표결했습니다 (헌의안 3, 대외 교단 관계 위원회의 위원들이 수정한 대로 채택됨). 지난 50년 간 우리는 복음주의연합에 남아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 최소한 세 번 표결하여 60 대 40 으로 가결되었었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오히려 60 대 40 으로 탈퇴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유들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고 표결 결과에 대해서도 후에 항의가 있었으므로, 차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들에 대해서 표결하게 되더라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는 사명에 협력하는 것과 사명을 타협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 올바르게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교제를 약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의 본질은 그것들이 주장하는 가치관의 견지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명에 신실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적용할까 하는 점에 있어 의견을 달리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나거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부터 뒷걸음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헌신은 내년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댈러스에서 모일 때에 축하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기념 위원회가 이미 이 획기적인 행사를 계획하기 위해 교단 내외의 여러 대표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 행사의 핵심적인 것 하나는 미국 장로교의 역사와 사역과 미래를 위한 기도를 수록한 기념 출판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발행되는 교단의 분기별로 간행하는 *byFaith* 의 모든 발행본을 사용하여 주요 사역과 문서, 그리고 우리가 귀하께 여기는 미국 장로교의 형성에 기여한 지도자들을 집중 조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혹은 교회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모든 발행물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 <https://byfaithonline.com/subscribe/>에서 신청하시면 이 기념 출판물을 비용이나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념 행사를 쉽게 도와 주실 수 있는 방법은 귀하의 교회의 서기나 목사님께 2022년 교회의 교인 통계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한 설명서가 12월에 귀하의 교회로 발송될 것입니다. 50년 동안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한 결과로 교인 현황과 선교 지원에 있어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미국 장로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위대한 수단이 되므로 진심으로 멋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의 교인 현황과 자원을 평가하는 일은 미래의 신실함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단계의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1) 50주년 판 *byFaith* 간행물을 신청하시고, 2) 귀하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50주년을 위하여 교인과 선교 지원 통계를 제출하시도록 권해 주십시오.

50주년 기념일에 가까이 가면서, 우리의 논쟁의 본질조차도 우리 중 아무도 성경이 요구하는 것에서 부족하게하기를 원하지 않음을 의미하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은, 말씀의 백성으로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소망을 여러 가지로 갈망하는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과 약속들을 우리 교회에 채워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에 신실하고, 그의 사명에 열정을 가지며, 그의 백성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 서로를 사랑과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이 죄와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분의 소망과 평강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가 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국 장로교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